

한국미생물생물공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제35대(2015년) 회장 정건섭

학회30주년사의 편집위원, 학회40주년사의 편집위원장으로 학회 변천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50년사의 학회장 회고사의 글을 쓰려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973년 3월에 창립총회와 학술발표회를 시작으로 우리 학회의 작은 초석을 놓았던 일이 50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생명과학 분야 학회 중에서 선도적인 학회로 발전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91년에 창간된 우리 학회의 영문학술지인 JMB가 1997년 SCI학술지로 등재되어 2021년도에는 IF 3.277 학술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발전에는 학회 창립을 주도하셨던 원로 선배 회원님들, 그 뒤를 이어 학회에 헌신하신 선배 회원님들, 그리고 동료, 후배 회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눈부신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본인은 2004년도에 간사장을 거쳐, 2015년도에 학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IMF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등의 많은 경제 사회적 위기를 거쳐 갔지만 운 좋게도 저의 임기기간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서 학회운영을 비교적 순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간사장을 맡았던 2004년도에는 당시 학회장이신 KIST의 김병홍 박사님께서 재정적 모금 유치활동과 학술대회 주제 선정 등의 학회운영 전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서강대의 이정국 교수님이 총무간사를 맡아서 특유의 철두철미한 성품으로 학회운영을 꼼꼼하게 챙겨주어 간사장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진 팀으로 학회운영을 해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학회는 간사장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회라는 말을 선배들로 부터 들어 왔지만, 막상 2015년도 학회장에 선임되고 보니 그 책임의 중압감이 많이 느껴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간사장의 팀워크를 통해 이러한 염려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학회 재정도 튼튼하게 일구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드림팀인 간사장은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강한 이규호(서강대) 간사장과 김응수(인하대) 총무간사, 재무간사(김지현), 학술간사(김동명, 김동욱, 김필, 조장천), JMB편

집간사(박용철, 반응선, 이정걸, 채종찬), MBL편집간사(명진중, 박윤경, 이동우, 이형재), 생물산업편집간사(강효정, 성봉현, 이나리, 최윤이), 산학연협동간사(이상준, 정원희, 조성학, 최종현), 국제협력간사(김명희, 배진우), 홍보조직간사(서영수, 서태근, 윤상선, 한상욱), 기획간사(이정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간사장을 비롯한 29명 간사님들의 무한 헌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도의 학회장과 간사장이 2015년도에 저와 함께 학회 일을 하였던 이규호 교수님과 김명희 박사님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금 학회 일을 위해서 늘 先公後私하는 두 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42차(2015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움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6월 24-26일 개최되어 미생물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11가지 주제의 International session과 본 학회에 소속된 세부 학술 분과들의 심포지엄 등을 포함해서 총 26개의 다양한 session이 진행되었으며, 총 1,998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졌고, 폭넓은 친교활동을 촉진시키는 성대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우리 학회에 “여성과학자상”을 제정하여 시상하였으며, KRIBB의 부하령 박사가 제1회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학회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학술적인 질적 발전을 거듭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회 내에 “생명과학 분야의 새로운 학문적 이슈를 탐색하는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생명과학 분야의 학문적 동향 파악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기대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학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신을 강조하며 더욱 계승해 나아가시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학회 이사진 구성, 집행 간사진 구성, 제위원회 구성에서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각종 회의에서도 소수 의견도 존중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우리 학회의 커다란 장점이라 생각하기에 이를 당부 드리는 것 입니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맞이할 50년을 향해 준비하는 세계 속의 학회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